

민주당 지지도, 국민의힘과 오차 범위 내

민주당, 큰 폭 떨어지며 31.3%...전계층 하락 국민의힘 1.3%p 상승한 30.2%...격차 1.1%p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2주 만에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1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실시한 10월 2주차(12~14일) 주중 잠정집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4.3%포인트 하락한 31.3%였다.

국민의힘은 1.3%포인트 오른 30.2%로 집계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는 1.1%포인트로 9월 5주차 조사 이후 2주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열린민주당은 3.1%포인트 상승한 9.4%였다. 이어 ▲정의당 5.8%(0.7%포인트 ↑) ▲국민의당 4.8%(1.4%포인트 ↓) ▲기본소득당 1.1%(0.1%포인트 ↑) ▲시대전환 1.1%(0.1%포인트 ↑) 순이었다. 무당층은 14.3%로 전주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은 거의 모든 권역·연령·직업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13.7%포인트 ↓, 44.2%→30.5%), 경기·인천(5.9%포인트 ↓, 36.1%→30.2%), 대구·경북(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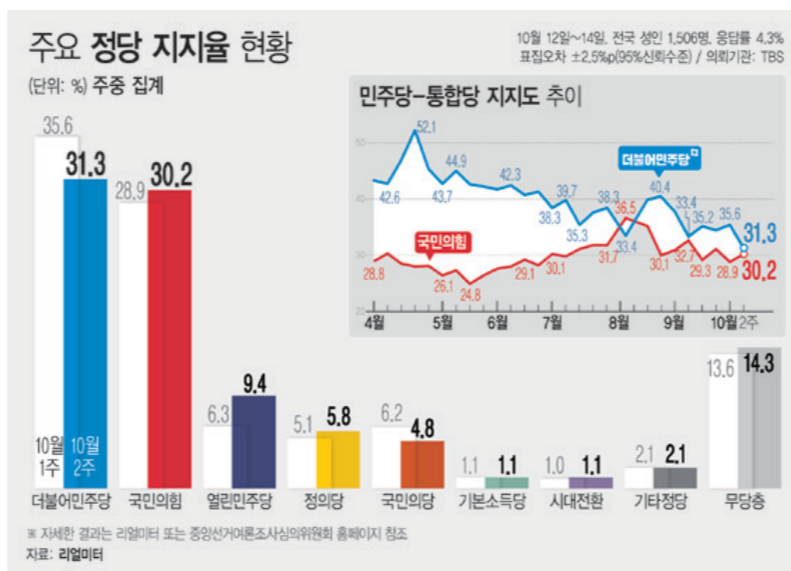
포인트 ↓, 26.7%→21.8%)에서 하락했고 광주·전라(4.2%포인트 ↑, 49.8%→54.0%)에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40대(8.3%포인트, 49.6%→41.3%)에서 낙폭이 컸으며, 성별로 여성(4.6%포인트 ↓, 36.3%→31.7%)과 남성(4.0%포인트 ↓, 34.8%→30.8%)에서 지지도가 모두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13.0%포인트 ↓, 59.0%→46.0%)에서 하락했고 보수층(3.3%포인트 ↑, 15.1%→18.4%)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직업별로 학생(9.4%포인트 ↓, 33.7%→24.3%), 사무직(7.4%포인트 ↓, 44.4%→37.0%), 무직(4.5%포인트 ↓, 29.4%→24.9%)에서 지지도가 빠졌다.

국민의힘은 충청권과 서울, 경기·인천, 20~40대 지지율이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9.7%포인트 ↑, 23.6%→33.3%), 서울(3.5%포인트, 29.3%→32.8%), 경기·인천(3.4%포인트, 28.2%→31.6%)에서 상승하고 광주·전라(9.4%포인트 ↓, 19.5%→10.1%), 부산·울산·경남(4.3%포인트 ↓, 35.6%→31.3%)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20대(11.2%포인트 ↑, 24.2%→35.4%), 40대(3.1%포인트 ↑, 21.6%→24.7%)에서 올랐으나 30대(3.2%포인트 ↓, 24.1%→20.9%)에서는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4.2%포인트 ↑, 12.0%→16.2%)에서 지지율이 반등했다. 직업별로 가정주부(4.4%포인트 ↑, 29.0%→33.4%)에서는 올랐고 무직(10.3%포인트 ↓, 30.7%→20.4%)에서는 지지도가 하락했다.

북한의 서해상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에 장관 아들의 '장편 소설' 발언에 이어 라임·유티머스 사태에 연루됐다는 여론 인사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라임·유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비리계이트'로 규정하며 특검까지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서면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으나, 큰 반등은 없었다. 정부·여당 전·현직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며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자 일부 민주당 지지층은 대체제 성격인 열린민주당으로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4889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506명이 응답(응답률 4.3%)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8월19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일 영령 앞에 무릎을 꿇고 참배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의 '호남 꺼안기' 전략

여권 심장부 향해 정서적 호소·정책적 접근 투트랙 구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야권의 서진(西進)전략, 이른바 호남 꺼안기가 거침이 없다. 여권의 오랜 심장부인 호남을 향해 정서적으로 호소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과거에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일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진다. 그 중심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있다.

국민의힘은 5·18민주화운동의 이념을 정당정책에 반영했다. 자연스럽게 호남의 최대 관심사인 5·18특별법 처리에도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유력권인 20위 이내에서 4분의 1을 호남지역 인사로 우선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호남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우선 추천제도'를 국민통합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조만간 의원총회와 비대위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상설 위원회격인 국민통합위(위원장 정운천)를 설치했으며 호남 제2 지역구가 배정된 '호남 동행' 국회의원 발대식도 가졌다.

이들은 광주를 찾아 5·18 묘역을 참배하고 5월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지역의 주요 현안과 예산산출 계획까지도 했다.

이들보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일부 정치인들의 막말, 왜곡·편향 등에 대해 사죄했다. 수해가 잦던 구례지역도 두차례나

방문해 호남민심을 흔들었다. 역대 보수정당 대표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그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김종인 위원장은 향후 정치구도에서 호남의 역할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들어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그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민 통합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호남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구도상 수도권은 민심은 호남의 바다 정서가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서진 전략을 펼치는 것은 1차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향하겠지만, 최종 타겟은 2022년 대선에 맞춰졌을 게 분명하다.

여야 진영대결 구도 속에 대권의 향배는 수도권 민심에 달려 있고, 거기엔 호남민심의 확장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호남 꺼안기 전략의 주요 포석이다. 나아가 본인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대권주자로 뵈다면 이런 호남꺼안기 전략이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야권 내부에서는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등의 연고를 들어 김 위원장을 호남 출신 대권주자로 거론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관전포인트는 모든 것에 앞서 그의 의도의 진정성일 것이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한동훈 증인 채택 공방... 野 “증언 기회 줘야” vs 與 “피의자 신분”

野 “본인 국감장 나오겠다” 與 “무죄증명 위해 내주냐”

여야는 15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국감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한 검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전주해 국민의힘 의원은 “한 검사장은 국감에 나와서 증언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언하고 있다”며 “만약 위증을 하면 책임은 본인이 당연히 지는 것이다. 한 검사장이 범사에 나와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자를 국감장에 세워선 안 된다고 맞섰다.

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한 검사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이기도 하다”며 “수사 중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게 되면 재판이나 수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회법상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이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가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내가 무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아니냐”며 “국감의 증인석에 수사받는 피의자의 무죄 증명을 위해 내주자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에 법무부 장관은 지난 번 법무부 국감 때 사실상 공무상 비밀에 포함될 수 있는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 야

당 관련이나 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완전히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한 검사를 불러 그것이 사실인지 항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야 대등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야 공방이 지속되자 윤호중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증인을 채택하는 것으로 위임했다”며 “두 간사가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발전소 동일사항

1. 발전설비용량 : 99.45kw
2. 사업개시예정일 : 2021.06
3. 사업운영기간 : 2021.06~2046.05(예정)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0.10.16.~2020.10.26.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양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셔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이메일 ilyang00@daum.net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5. 발전소명	6. 발전사업신청자	7.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영남 태양광발전소	유영남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846m ² /9,000m ²)
2. 문수2호 태양광발전소	하순금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1,418m ² /9,000m ²)
3. 재환 태양광발전소	이재환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826m ² /9,000m ²)
4. 문수1호 태양광발전소	김종현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846m ² /9,000m ²)
5. 금회2호 태양광발전소	박금희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882m ² /9,000m ²)
6. 사남2호 태양광발전소	최사남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1,351m ² /9,000m ²)
7. 화영2호 태양광발전소	유경서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1,314m ² /9,000m ²)
8. 화영1호 태양광발전소	함미경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1,102m ² /9,000m ²)
9. 현주 태양광발전소	송현주	나주시 왕곡면 신월리 615-2(917m ² /9,881m ²)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